

안동 고산칠곡

# 무릉도원 찾아가는 일곱 개의 물굽이

안동시 일직·남후면의 미천(안망천) 물줄기에 조성된 고산칠곡은 퇴계 이황의 학통을 이어받은 대산 이상정이 경영한 구곡 원림이다. 퇴계 이후 영남학파 최대의 성리학자로 꼽히며, 소퇴계(小退溪)로 불릴 정도로 학문이 깊었던 이상정. 더불어 인품도 바른 인물로 평가받는 그가 사랑했던 아름다운 물줄기를 거닐어보자.

고산칠곡(高山七曲)은 안동시 일직·남후면의 미천(眉川) 물줄기에 조성된 구곡 원림이다. 낙동강의 지류인 미천은 경상북도 의성군과 안동시의 경계에 솟은 황학산(黃鶴山, 782m) 기슭에서 발원해 달곡천이라는 이름으로 의성군 점곡면을 지난다. 이어 단촌면을 적시고 북류하며 안동의 일직면으로 들어선 다음, 고산칠곡의 아름다운 물굽이를 빙고 남후면을 지나 검암리에 이르러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낙동강에 합류하기까지 여러 굽이를 이뤄 모양이 눈썹처럼 생겼으므로 미천이라 불린다. 안망천(安望川)이라고도 한다.



늪연교가 있던 굽이 부근에 지금은 송리철교가 놓여 있다.

미천 줄기에 처음 고산칠곡을 설정하고 경영한 이는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이다. 이색의 15대손으로서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학통을 이어받은 대산은 퇴계 이후 영남학파 최대의 성리학자로 꼽히며, 소퇴계(小退溪)로 불릴 정도로 학문이 깊었다. 따로 호학(湖學)이라 부르기도 하는 그의 학문은 구한말까지 이어져 영남 퇴계학파의 주류를 이뤘다. 대산은 학문의 깊이도 깊지만, 인품도 바른 인물로 평가받는다. 당시 영남의 선비로서 언행이 겸손하고 공경스러우며 눈매가 단정한 이는 묻지 않아도 대산의 문인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서른 살 때인 1740년 미천 줄기를 지나다 아름다운 경관에 매혹된 대산은 이곳을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선일곡(1767년)에 대석산(大夕山)에서 뻗어온 제월봉(霽月峰)이 미천과 만나는 둔덕 위에 서실 세 칸을 지었다. 그러나 물에 너무 가깝고 바람이 많이 불어 기거하기가 마땅치 않자 3년 뒤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었다. 새로 옮긴 곳은 마을이 가까웠으나 그 앞으로 울창한 송림이 있어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대산은 정사의 이름을 고산정사(高山精舍)라 지었다. 고산(高山)이라는 이름은 고암(高巖), 또는 암산(巖山)으로 불리던 마을 이름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더불어 고산이라는 말은 《시경(詩經)》의 ‘높은 산은 우러르고 큰 행적을 따르네(高山仰之 景行行之)’ 하는 구절에서 취했는데, 이는 공자가 “인(仁)을 좋아하는 것이 이와 같구나. 도(道)를 향해 가다 마음을 다하여 힘쓰고 힘쓰다가 그만두게 될지라도, 몸이 늙는 것도 잊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모른 채 도를 향해 노력하다가 죽은 다음에야 그친다.”고 한 해석에서 취한 것이다. 따라서 고산칠곡에는 자연과 교감을 통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인(仁)을 추구한 대산의 도학적 실천의지가 강하게 투영돼 있다.

고산칠곡은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고산칠곡은 설정자인 대산 이상정이 칠곡시를 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산철곡의 기문, 직접 그린 철곡의 전체 개념도 <철곡총도>와 각 굽이를 그린 <개별도>가 모두 본인의 손에 이루어졌고, 이는 저서 《대산문집(大山文集)》에 전한다.

대산 이상정의 고산철곡시 <고산잡영(高山雜詠)>을 보면, 대산은 주자 이후 조선의 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던 구곡의 ‘아홉’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향토의 조건에 맞는 ‘일곱’이란 숫자로 구곡문화를 철곡의 형식으로 제시했다. 또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지 않고 하류로 가면서 굽이를 정한 점도 특징이다. 고산철곡을 노래할 때 각 굽이의 명칭을 따로 붙이지 않았으며 노래 뒤에 주석도 달지 않았다. 시의 형식에서는 서시(序詩)도 없다. 그렇지만 이상정은 <철곡총도>라는 개념도에 각 굽이의 대표 명칭을 적어 놓았으니 이 명칭을 각 굽이의 대표로 삼을 수 있다. 이렇듯 고산철곡의 형식은 여느 구곡과 다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여느 구곡 시와 마찬가지로 각 굽이마다 주자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제1곡 늪연교

옛 다리는 사라지고, 철교에는 기적소리만 울리네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와 광음리의 경계인 미천의 여울이 알게 흘러내리는 곳이 고산철

고산철곡의 제1곡인 늪연교 전경. 이 근처에 다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곡의 제1곡인 늪연교(凜然橋)다. 지금은 이 길로 중앙선 철도가 지나가는데, 냇물에는 송리철교가 걸려 있다. 하천 독 너머로는 널따란 곡저평야가 발달해 있다. 수심이 낮은 편이고 이곳에 나무다리가 있어 행인들이 이용하던 공간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다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공산(公山)의 남쪽 기슭 시냇물 그윽하고 그윽하며(公山南畔水幽幽)  
 여기저기 돌이 삐죽 솟아 배 뒤집히기 쉽네(亂石參差易覆舟)  
 건널 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 잃지 않으면(惶恐一心能利涉)  
 중국의 구당협(瞿塘峽)도 예부터 안전한 물길이라네(瞿塘從古是安流)

대산은 고산철곡 여정에 나선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도학의 높은 경지에 이르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떠나는 유람이다. 고산철곡의 첫 번째 굽이는 공산(公山) 남쪽의 늪연교라는 다리다. 여기는 물이 깊어 나룻배도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친다. 공산 남쪽을 휘도는 물길이 깊숙하고 삐죽삐죽한 돌들도 솟아 있어 배가 부딪친다면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학의 길은 이렇듯 멀고도 험하다. 그러나 이상정은 포기하지 않는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조심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당협(瞿塘峽)도 안전한 물길이라고 노래한다. 구당협은 수중암초와 깎아지른 절벽이 펼쳐지고 급한 여울이 휘돌아 흐르는 중국 양자강(揚子江)의 협곡을 말한다.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는 철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제2곡 세심정

마음 씻는 정자는 어디로 갔을까

제1곡에서 600~700m 정도 물길을 따라가면 5번 국도의 광음1교 부근에 닿는다. 왕복 4차선 도로와 주변의 건물들 때문에 이곳 풍광에서 옛 맛을 찾기는 어렵다. 대산 이상정의 <철곡도>를 보면 작고 순한 시냇물이 미천으로 합류하는 풍경이 그려져 있다. 바로 여기가 제2곡인 세심정(洗心亭)이다.

대산이 고산철곡을 경영할 당시에는 미천 물줄기 따라 펼쳐진 넓은 들판이 있고, 그 냇가에는 맑고 깊은 소가 있었다. 낚시대 드리우는 곳은 돌계단이 빙 둘러 있었다. 소박하고 아름다운 풍경인데, 지금은 도로가 넓혀진데다 합류 지점에 모래를 잔뜩 쌓아놓은 야적장이 들어



선 탓에 옛 정취를 찾을 길이 없다. 대신은 노래한다.

넓은 들 끝나는 곳에 냇물이 고여 소(沼)가 되고(平郊欲盡水初滄)  
돌계단 이끼 낀 뉘시터 물가를 빙 둘러 있네(石棧苔磯繞曲汀)  
늦은 봄날 제자들과 목욕하고 바람 쐬기를 끝내면(童冠暮春風浴罷)  
옷 털어 다시 입고 세심정으로 걸어 올라가네(振衣高上洗心亭)

고산칠곡의 제2곡은 냇물이 흘러오다 고이면서 잔잔한 소를 이룬 굽이다. 돌계단을 내려가면 이끼 낀 뉘시터가 빙 둘러 있으니 조대(釣臺)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대신 이상정은 《논어》에 나오는 증점(曾點)의 고사(故事)를 인용한다.

춘추 시대 말기 노나라 사람인 증점은 공자의 제자. 어느 날 공자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포부를 말해보라고 했다. 넷 중 셋은 출세를 하여 자신의 원대한 야망을 펼치겠다는 야망을 밝혔으나, 증점은 “봄날 옷이 만들어졌으면 어른 대여섯 명과 아이 예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沂水)에 가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의 대 아래서 바람을 쐬면서, 시를 읊조리다가 돌아오고 싶습니다.(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伍六人 童子六七八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하고 말했다. 이에 공자는 증점을 칭찬하며 본인도 증점과 같이 하겠다고 대답했다.

대산은 증점의 고사를 떠올리면서도 단지 바람 쐬기로 끝내지 아니한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바람을 쐬고 나면 뉘시터 바위에 넣어놓았던 옷을 툭툭 털어 입고 세심정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몸을 깨끗이 했으나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마음의 먼지도 털어내고, 세심정에 올라 도학을 강론(講論)하는 것이다.

### 제3곡 유연대

#### 푸른 절벽 아래에 형성된 심연

제2곡에서 800~900m 정도 물길을 따라 내려가면 물굽이가 오른쪽으로 휘도는 지점에 이른다. 물줄기가 부딪치는 사면에는 20~30m 높이의 수직 절벽이 누만 년의 세월을 쫓아 눈 앞에 버티고 있다. 절벽 아래 형성된 소는 맑고 넓고 깊다. 이 지점이 바로 제3곡인 유연대(悠然臺)다. 지나온 두 개의 굽이와 달리 대신 이상정이 경영하던 그 시절과 거의 변하지 않은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온 굽이다. 옛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요즘 사람들도 여기서 자연을 벗삼아 뉘시를 즐긴다.

푸른 절벽 마주 보는 사이에 깊게 고여 있는 물(蒼岸雙開一水深)  
운무가 아침저녁으로 평지 숲을 가려 어둑어둑(煙雲朝暮暗平林)  
한가로운 마음으로 높은 대(臺) 위에 앉아 있나니(試向悠然臺上坐)  
천 년 지나도록 누가 알랴. 산속에 사는 이 마음을(千年誰識見山心)

대산 이상정은 셋째 굽이에서는 취병(翠屏), 취벽(翠壁)이란 푸른 두 절벽 아래의 소(沼)를 노래한다. 푸른 절벽이 양쪽에서 마주보는 깊은 심연(深淵)이다. 그곳은 아침저녁으로 는 안개와 구름이 숲을 가려 어둑하기까지 했다. 다른 이들에게는 잘 보이지도 않고 남들이 잘 찾을 수도 없는 곳이다. 대신 이상정은 자신의 산심(山心)을 심연에 비유하고 있다. 높은 대에 앉으면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누가 알겠는가, 하는 노래로 한가로운 마음이 된다.

대산의 제3곡 시는 주자의 <무이도가> 제5곡시와 운자가 같고 내용도 비슷하다. 따라서 이상정의 ‘산심’과 주자의 ‘만고심(萬古心)’은 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고심은 가르침을 영원토록 전수하는 성인(聖人)의 마

고산칠곡의 제3곡인 유연대 풍경. 높은 바위 벼랑 아래 깊은 못이 형성돼 있다.



음이자 학문 정신이다. 제3곡의 그림을 보면 심연은 맑다는 뜻의 정담(澄潭)으로 표현했고, 취병 위에는 유연대(悠然臺)가 있다.

### 제4곡 고산정사

고즈넉한 서당에 서려 있는 학자의 향기

제3곡에서 미천 물줄기를 따라 300m 정도 내려가면 물줄기가 크게 휘돌기 시작하면서 '새 을(乙)' 자를 이루며 흘러가는 굽이에 이른다. 이렇게 500~600m를 급하게 굽이돌아 흐르는 물가 언덕에 고산찰곡의 중심 공간인 제4곡 고산정사(高山精舍)가 자리하고 있다. 대산이 세상을 떠난 뒤인 1789년 제자들은 서원(書院)이 있던 곳에 이상정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한 고산정사를 세웠다.

고산정사 아래에는 암산유원지가 조성돼 있어 여름철이 되면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들어 시끌벅적거린다. 최근에는 겨울에 얼음축제도 펼쳐져 사시사철 봄비는 곳이 되었다. 그래도 다행히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언덕의 솔밭에 있어 맑은 기운을 잘 유지하고 있다.



암산유원지 언덕에 있는 고산정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인(仁)을 추구한 대산 이상정의 실천의지가 강하게 투영돼 있다.



고산찰곡 제4곡 고산정사 맞은편 바위벽에는 측백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고산정사 건너편의 강변길 벼랑. 차량 통행이 가능한 바위굴이 뚫려 있다.



고산정사가 있는 강마을은 암산유원지로 개발돼 있어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몰려든다.



고산찰곡의 제4곡인 고산정사. 무릇과 소나무 너머의 서원 건물이 속세를 떠난 듯 고즈넉하다.

고산정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천 건너의 암벽인 제월봉이다. 강 쪽에는 주민들이 '구리날'이라 부르는 벼랑이 이어진다. 그 가파른 벼랑에는 사시사철 푸른빛을 내는 측백나무 약 300여 그루가 뿌리를 박고 살아가고 있다. 이 안동구리 측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252호)의 측백나무들은 수령이 100~200년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측백나무 자생지의 하나로 꼽힌다. 강변길 벼랑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바위굴이 뚫려 있다. 이런 물굽이에 울려 퍼지는 대산의 노랫소리는 청아하다.

물 맑고 산 깊은 곳에 한 마을이 있는데(水靜山深自一村)  
텅 빈 서재에 온 종일 사립문을 닫고 사네(虛齋終日掩紫門)  
물가에서 조는 새며 계단에서 웃는 꽃(汀禽欲睡階花笑)  
향 한 자루 피워 놓고 말없이 앉아 있네(一炷爐香坐不言)

물 맑고 깊은 산중의 강마을, 그곳에 자리한 작은 집, 사립문을 닫고 온종일 책을 읽는

대산... 이윽고 대산은 서재에서 책을 읽다 향로에 향을 피워 놓고 말없이 앉아 강을 바라본다. 먼 경치서부터 눈에 들어온다. 물새는 냇가에서 고기를 기다리다 졸고, 돌계단 사이에 활짝 핀 꽃들은 하늘하늘 흔들린다. 그리고 서재 안에는 향 한 자루 피워놓고 고요히 사색하는 자신이 있다. 높은 경지에 오른 도학자와 천리대로 움직이는 사물들의 조용한 어울림이 한 폭의 단아한 그림처럼 다가온다.

제5곡 심춘대

벼랑 위에 있던 옛 원은 어디로 갔을까

제4곡 고산정사 앞에서 1.4km 정도 물길을 따라 내려가면 중앙선 철도를 지나고, 그 아래를 지난 물길이 왼쪽으로 부드럽게 굽어지는 지점에 이른다. 냇물의 공격 사면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인 높이 50~60m에 이르는 퇴적암의 수직 벼랑이 바로 다섯 째 굽이인 심춘대(尋春臺)다. <칠곡도>에서 심춘대 절벽은 북벽(北壁), 시내에 걸린 홍교는 관교(官橋)로 표기돼 있다. 심춘대 위는 옛 원(院)이 있던 터다. 지금은 방축을 쌓고 심춘대 아래를 농토로 개간하

면서 옛 풍광과는 많이 달라졌다. 제5곡에 이른 대산은 노래한다.

심춘대 아래 냇물 질펀하게 흘러가는데(尋春臺下水溶溶)  
우뚝 솟은 절벽 위에 고원(古院)이 텅 비어 있네(老壁嵯峨古院空)  
한 줄기 다리가 나루터를 가로 질렀으니(一帶虹橋橫渡口)  
누가 힘들었나 냇물을 건너게 한 그 공덕(何人能辨濟川功)

이곳은 옛 원(院)이 있던 자리다. 원은 조선 시대에 관리가 공무로 출장을 다닐 때에 숙식을 제공하던 곳이다. 아마 이곳은 조선 중기까지만 그 역할을 했고, 대산 이상정이 고산칠곡을 경영할 때인 18세기 후반에 원은 이미 없어졌던가보다.

대산은 옛 원이 텅 비어 있다고 노래했다. 냇물을 굽어보는 불그죽죽한 심춘대 절벽 위에는 옛 원자리가 있었지만, 작가의 눈에는 미천에 걸린 홍교(虹橋)가 눈에 들어 왔다. 홍교는 무지개다리의 뜻이다. 보통은 돌로 아치형으로 쌓은 석교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나무로 놓은 쉼다리를 의미하는 듯하다. 대산이 그린 <칠곡도>를 보면 아주 공들인 듯한 튼튼한 쉼다리가 그려져 있다.

쉼다리는 처음 놓을 때는 푸른색이었다가 잎이나 솔가지 등이 말라가며 점차 다양하게 색깔이 바뀌다 해서 홍교라고도 불렀다. 매년 큰물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다리를 놓아야 했는데, 인적이 드문 마을을 잇는 다리라면 그때그때 백성들 사정에 맞는 시기에 다리 작업을 했겠지만, 영남의 큰 고을 안동과 의성·영천 등을 연결하는 큰길이었으니 어떤 일보다 우선이었을 것이다.

대산 이상정은 연일 현감 시절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노고를 이해하였던 관리답게 다리의 운치만을 노래하지 않고, 그 다리를 놓기 위해 애썼을 백성들에게도 따스한 시선을 보낸다. 쉼다리가 있었을 이 굽이로 지금은 중앙선 철교가 걸려 있으니, 세월이 흘러 교통수단은 비록 달라졌어도 그 역할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일까.

제6곡 무금정

잡초 우거진 돌밭 사이 버려진 정자

여섯 째 굽이인 무금정(無禁亭)은 제5곡에서 물길 따라 600m 정도 흘러 내려간 지점이다. 낙동강을 향해 힘차게 흐르던 미천은 이 굽이에 이르러 급하게 휘돌아 흐른다. 그 지점에 50~60m 정도 되는 수직 암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고산칠곡의 제5곡인 심춘대. 저 위에는 조선시대 원이 있었다.





절벽의 광경은 낙동강 본류에 위치한 하회마을의 부용대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절경을 자랑한다. 휘돌아 흐르는 미천의 물줄기도 거룩한 절벽, 그리고 그 아래의 깊은 소와 조화를 이룬다. 이 지방에서 잘 알려진 '무릉유원지'가 바로 여기다. <칠곡도>에는 고창봉과 장육암을 좌우에 두고 우뚝한 창벽(蒼壁)이 그려져 있다. 현재는 여름철이 되면 피서객들이 제법 많이 찾아든다. 대신 이상정의 시를 보면 18세기의 이곳 풍광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끊어진 산록(山麓) 길게 뻗어 옥병풍처럼 돌렸는데(斷麓透遲面玉屏)  
 잡초 우거진 돌밭 사이 버려진 정자가 있구나(石田荒草認遺亭)  
 성색(聲色)에는 관심 없어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데(等閒聲色無人管)  
 텅 빈 산은 예전대로고 냇물은 절로 맑구나(依舊山空水自清)

대산 이상정은 무금정(無禁亭)에 이르렀다. 미천의 물길은 12폭 병풍 같은 암벽을 만나 급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아래에는 옥빛 소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강가 돌밭 사이에 있는 정자는 버려진 채였다.

정자는 선비들이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풍류의 공간이기도 하다. 풍류에는 으레 성색(聲色)이 따르기 마련이다. 성색이란 단어는 '말소리와 얼굴 빛깔'이라 해석되지만, 음악과 여색(女色)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대신은 이곳의 선비들이 맑아 성색의 즐거움을

좃지 않으니 당연히 정자는 퇴락하고 관리하는 사람조차 없는 것이라고 칭찬한다. 그리고 둘러보니 휘돌아가는 물줄기와 그 너머의 병풍 같은 암벽은 언제나 그 모습이었다.

제7곡 무릉리

왜 굳이 무릉도원을 찾겠는가

무금정에서 1.5km 정도 물길을 더 내려가면 남후면 소재지인 무릉리가 나온다. 절벽 사이를 흐르는 미천이 곳곳에 소와 담(潭)을 이루며 흐르다가 이곳에서 들판을 만나 평범한 냇물로 바뀌는 굽이다. 미천 물줄기가 퇴적된 사면을 따라 널따란 평지가 펼쳐지고 여기에 형성된 마을이 바로 마지막의 극치인 제7곡 무릉리(武陵里)다. 대신 이상정은 무릉도원(武陵桃源)을 연상케 하는 지명을 지닌 이 굽이에서 고산철곡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이 마을의 지명유래를 보면 물줄기가 산부리를 돌아 흘러 들어가므로 '무른개'라 불렀는데, 한자로 적으면서 무릉(武陵)이 됐다고 한다.

넓은 들 트인 산에 단지 평평한 냇물뿐(野闊山開但平川)  
 숲 너머 울타리로 저녁연기 피어오르네(隔林籬落見人烟)  
 기이한 유람 다하는 곳 다시 머리 돌려(奇遊欲盡重回首)  
 항아리 같은 협곡을 나오니 별천지가 있구나(去管壺中別有天)

대산 이상정이 협곡을 빠져나오자 이전과는 다른 풍광이 열렸다. 들판은 넓어지고, 산도 나지막해 시야가 트였다. 그 사이를 적시는 냇물도 부드럽게 잔잔히 흘렀다. 널따란 농토는 미천 기슭에 기대어 사는 남후면 고을 주민들을 대대로 먹여 살린 그 땅이다. 대신은 이 들판을 지나 수풀 너머의 농가들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해질녘이었던가. 저녁밥 짓는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 광경인가.

대산은 항아리 같은 협곡을 빠져 나오니 별천지가 있다며 이 평범한 마을을 무릉도원의 별천지라고 감탄하다. 평범하지만 평화스런 광경에서 대신은 무릉도원의 참 의미를 발견한 것이다. 주자는 <무이도가>의 구곡(九

무릉리 마을에 있는 작은 가게. '도원'이란 간판에서 무릉도원은 완성이 된다.



고산칠곡의 제7곡인 무릉리 전경. 대산 이상정은 평범한 시골마을을 극처로 삼았다.



曲)에서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적인 삶의 공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임을 강조하였다. 대산 이상정에게도 고산칠곡은 비현실적인 이상향을 꿈꾸는 도가적(道家的)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 현실 속에 이상이 존재하는 유가적(儒家的) 공간임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다.



**여행 길잡이**

안동 고산칠곡(高山七曲)은 낙동강의 지류인 안동시 일직·남후면의 미천 물줄기에 조성된 구곡원림이다. 일곱 굽이는 제1곡 능연교(凜然橋), 제2곡 세심정(洗心亭), 제3곡 유연대(悠然臺), 제4곡 고산정사(高山精舍), 제5곡 심춘대(尋春臺), 제6곡 무금정(無禁亭), 제7곡 무릉리(武陵里)다. 물줄기로만 총 6.1km인데, 도보와 차량 답사 모두 가능하다.

**숙식(지역번호 054)**

제4곡인 고산정사가 있는 암산유원지에 암산유원지캠핑장(859-2553), 암산유원지가든(859-2552), 호수풍경민박(010-4449-9833) 등이 있다. 제6곡인 무금정의 무릉유원지(859-7462)에 식당이 있다. 안동 시내의 숙박시설을 이용해도 괜찮다.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남안동 IC → 일직면 → 5번 국도 → 원호리 → 송리철교

**참조(지역번호 054)**

안동시청 대표전화 840-6114